

# 〈瀛洲十景歌〉 研究

梁 順 善

## 目 次

- |         |           |
|---------|-----------|
| 1. 序論   | 2) 形式考    |
| 2. 本論   | 3) 文學的 意義 |
| 1) 內容分析 | 3. 結論     |

## I. 序 論

예로부터 歌辭作品 中에는 地方의 勝景을 歌辭로 作品化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地方의 勝景을 作品化한 것 中에서 代表的인 作品으로는 關東八景을 노래한 松江의 〈關東別曲〉과 平安道 地方의 아름다운 景致와 邊方의 實況을 노래한 白光弘의 〈關西別曲〉 등을 들 수 있다.

本稿에서 살피고자 하는 〈瀛洲十景歌〉도 勝景을 歌辭로 노래한 것이다.

濟州를 象徵하는 絶景을 꼽았을 때 얻은 瀛洲十景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열개의 絶景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集成되었는지는 確實치가 않다. 다만 中國의 ‘江陵八景’과 ‘關東八景’ 등이 그러하듯이 瀛洲十景 역시 地域住民들 사이에 오랜 시간 口傳되다가 어느 시기에 자연스레 具體化되지 않았나 推測해 볼 뿐이다.

文獻上으로는 詩로 읊은 記錄들이 朝鮮朝 孝宗(7年, 1651) 무렵부터 간간이

눈에 뜨이나 散漫하고,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瀛洲十景도 朝鮮朝末葉에 와서야 비로소 一貫性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sup>1)</sup>

한편, <瀛洲十景歌>라는 말에서 왜 “瀛洲”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는지 文獻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文獻上으로는 最初로 史記에 “瀛洲”라는 말이 보이고<sup>2)</sup>, 다음 東國世紀에도

以金剛爲蓬萊 智異爲方丈 漢拏山爲瀛洲

라 하여 “瀛洲”라는 말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東國輿地勝覽 濟州牧 東巫小峽條에 의하면

漢拏山一名丹山 即中海丹嶼嶼果乃東巫小峽 神仙所居 其東北有瀛洲山 故世稱耽羅爲東瀛洲

라 하여 즉, 瀛洲산이 있기 때문에 瀛洲, 東瀛洲라 하였으며, 이는 바로 漢拏산이 있는 耽羅의 名稱으로 通用되었다.

다음에는 “瀛洲”라는 말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다.

“瀛”이라는 뜻은 楚나라 말로 ‘물 속에 있다’는 뜻인데, 결국 “瀛洲”란 뜻은 ‘물 속에 있는 물’이 된다.(史記 진시황 본기 28년조 참조)

위의 文獻들과 語義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瀛洲’라는 말은 곧 濟州를 指稱한 것이며, <瀛洲十景歌>라고 하는 것은 濟州에 있는 十景을 主題로 해서 이루어진 作品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瀛洲十景歌>가 國文으로 쓰여져서 실려 있는 것에는 <李在守實記><sup>3)</sup>와 <濟州島實記><sup>4)</sup>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資料를 놓고 서로 比較해 보았을 때 간혹가다 조금씩 서로 틀린 句節이 눈에 뜨일 따름이므로 內容은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1) 《月刊觀光濟州》1월호, 월간관광제주사, 1987, p.13.

2) 「瀛洲」라는 이름은 史記 진시황 본기 28년조에 보이는데, 제나라 사람인 서불 등이 바다 속에 三神山이 있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는 신선을 찾아 오겠다고며 진시황에게 글을 올리는 대목에 나온다.

3) 趙武性, 《李在守實記》, 中島文華堂, 1932.

4) 金斗奉, 《濟州島實記》, 濟州實跡研究社, 1932.

本稿에서는 〈李在守實記〉 속에 삽입되어 있는 〈瀛洲十景歌〉를 저본으로 해서 〈瀛洲十景歌〉의 內容과 形式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 作品이 지닌 文學的 意義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瀛洲十景歌〉의 內容과 形式을 除外한 다른 여러 諸要素들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內容分析

이제 全 119節 235句 1,858字가 되는 本 歌辭의 內容을 考察하되는데 편의상 十景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序 辭〉

칠천여척 한라산은 남해중에 돌출하고  
七千餘尺 漢拏山 南海中 突出

풍랑이 로호하여 해변에 물새 들은  
風浪 怒號 海邊

자연을 자아내니 삼신산<sup>5)</sup> 중 새일인  
自然 三神山 第一

영주산이 이안이나  
瀛洲山

十景의 景致를 말하기 전에 十景이 있는 瀛洲山에 대해서 說明하고 있다. 中國에서는 옛날부터 漢拏山을 瀛洲山이라 하여 三神山의 으뜸으로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言及하고 있다. 이어

#### 〈第一景：城山日出〉

제일경 성산일출 동해변에 두렷한 봉  
第一景 城山日出 東海邊 峯

일출산이 분명하여 죽장망혜<sup>6)</sup> 차저가서  
日出山 分明 竹杖芒鞋

5) 중국 전설에서 발해만 동쪽에 있는 蓬萊山·方丈山·瀛洲山

6) 대지팡이와 짚신

사방을 살펴보니 바닷물은 울렁울렁  
 四方  
 새벽빛은 반짝반짝 천산이 어둡더니  
 千山  
 동해상에 붉은박취 부상에 등실 낚히 썬  
 東海上 扶桑  
 만국이 밝아진다 어선들은 일출보고  
 萬國 漁船 日出  
 어귀여차 돛을달고 물새들이 모혀드니  
 일출처가 여귀로다 우습고도 우습도다.  
 日出處  
 과부의 헛된수고 일출처를 차지려고  
 夸夫 日出處  
 수천만리 허보하되 성산일출 몰랐스니  
 數千萬里 虛步 城山日出  
 그령혼을 잠깐불너 이곳을 가라칠가  
 靈魂

〈瀛洲十景〉 가운데에서 그 第一景인 城山日출을 紹介하고 있다.

城山의 해돋이는 예로부터 神秘로운 景致가 逸品인데, 해돋이 때의 光景을 매우 寫實的이고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表現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日出處를 찾으려고 努力했으나 결국 못찾고, 이제는 靈魂이 되어 버린 夸夫들에서도 城山日출을 말해 주고 있다.

〈第二景：瀛丘春花〉

제이경 영구춘화 삼삼오오 작반 하야  
 第二景 瀛丘春花 三三五五  
 영구를 차저가니 방선문이 두렷하다  
 瀛丘 訪仙門  
 방선문하 맑은샘은 탄금성<sup>7)</sup>을 자어내고  
 訪仙門下 彈琴聲  
 량암에 두견화 피고 류막에 뽕꼬리 노래하며  
 兩岸 杜鵑花 柳幕  
 공중에 종달새 울제 시인묵객 오고가니  
 空中 詩人墨客

7) 지문고·가야금 타는 소리

작작히 붉은꽃은 이십만도민을 대표하야  
 灼灼 二十萬島民 代表  
 바람에 너울너울 춤을추며 환영한다  
 歡迎  
 류조등만<sup>8)</sup> 휘여잡고 허유허유 올라가니  
 柳條藤蔓  
 우선대가 여거보대 신선은 간곳업고  
 遇仙台 神仙  
 고인행적만 툃툃히 그려있다 거거안자 시을부며  
 古人行跡 歷歷 詩  
 꽃따서 냄새맡고 배회고병 구경할제  
 徘徊顧瓶 求景  
 붉은단자 풀을정은 가지가지 단정이라  
 字 靑 丹青  
 춘흥을 도두우니 삼춘가경이 이에서 더 조흐랴  
 春興 三春佳景

訪仙門은 예로부터 神仙들이 노닐 만큼 絶景이라 하여 先人들에 의해서 일컬어져 왔던 곳인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배어난 周圍 景觀은 逸品이다.

先人들은 濟州에서 바위와 봄꽃(진달래와 철쭉)이 이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다고 여겨 이곳을 瀛丘라 이름했고 <瀛洲十景>의 하나로 꼽아왔다.

지금도 그들이 興趣를 못이겨 岩壁에 彫刻한 磨崖碑가 군데군데 선명히 남아 있으며, 遇仙台라 새겨진 또 하나의 바위가 있다.<sup>9)</sup>

여럿이 짝을 지어 瀛丘를 찾아가니 訪仙門이 있고, 訪仙門 아래의 맑은 샘과, 이 맑은 샘물 아래에 분홍빛 杜鵑花가 되비쳐 흐르며, 피꼬리와 종달새가 울 때 이 아름다운 곳에 詩人墨客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詩人墨客들이 이 곳을 찾았을 때 붉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들을 歡迎하여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遇仙台는 말 그대로 '옛날 孝誠이 지극한 한 樵夫가 神仙을 만났다'는 傳說이 전해지는 곳<sup>10)</sup>인데, 가서 보니 神仙은 간 곳 없고 古人들의 발자취만 뚜렷하게 보인다. 여기에 앉아 詩를 읊조리고 꽃을 따서 냄새를 맡으며 이리저리 구경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佳景은 없다.

8) 버드나무 가지와 등나무 덩쿨

9) 《月刊觀光濟州》 5월호, 월간관광제주사, 1987, p. 17.

10) 앞의 책, p. 17.

## 〈第三景：橘林秋色〉

제삼경 갈림추색 갈림추색 조은경치  
第三景 橘林秋色 橘林秋色 景致

강릉천수 완연하다 황금누린 꺾은  
江陵千樹 黃金 橘

성숙됨을 자랑하야  
成熟

향취를 진동하야 목사는 미취하고  
牧使 微醉

예기는 가무할세 소년한량들은 꺾을 던져 맛고주니  
藝妓 歌舞 少年閑良 橘

두목지가 지나간듯 가을경치 더욱솟타  
杜牧之 景致

濟州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橘이 자랄 수 있는 氣候風土여서 아득한 옛적부터 數10種의 橘을 집집마다 울타리 안에 심어 왔다.<sup>11)</sup> 그래서 늦가을부터 눈이 내리고 봄 새싹이 움틀 때까지도 새과란 나무에 黃金色 橘이 주렁주렁 달려 濟州의 시커먼 돌담과 草家지붕 景觀과 調和가 되어 가을 風景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橘이 익어 黃金色을 띠고 香氣를 내뿜을 때 外地에서 赴任해 오는 牧使들은 춤과 노래를 곁들여 이것에 醉하였다.

少年閑良들이 橘을 던져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마치 杜牧之가 지나간 것처럼 비유하여 가을 景致가 더욱 좋음을 強調하고 있다.

이제 옛멋에 곁들인 橘林秋色은 없으나 눈덜인 漢拏山을 背景으로 黃金色橘이 물결치는 光景은 濟州가 아니고서는 想像도 못할 絶景이다.

## 〈第四景：山浦釣魚〉

제사경 산포조어 방화수류하야 전천으로 내려가니  
第四景 山浦釣魚 訪花隨柳 前川

산지 물은 바다로 흘리고 중양은 언덕에 느러진대  
山池 重陽

고기낚는 어옹들은 엄자릉<sup>12)</sup>의 본을바다  
漁翁 嚴子陵

11) 梁淳瑛, 〈濟州風土記와 風土錄의 比較 研究〉, 具壽榮 華甲論叢, 1985. p.65.

12) 嚴光, 字가 子陵. 後漢 때의 사람.

칠리탄 차저가니 물결도 잔잔하고  
七里

사방이 고요한대 크고적은 어선들은  
四方 漁船

상하에 라렬하니 적벽강 화진시에  
上下 羅列 赤壁江 火戰時

진선이 련환한듯 한겨할새 저어옹은  
戰船 連環 漁翁

청약림 복사의<sup>13)</sup> 로 사공서우 섬은날에  
靑藜笠 綠蓑衣 斜風細雨

조어에 뜻을부치 부귀공명 다마리고  
釣魚 富貴功名

오종오호 소오하니 달팔십 기다리는  
吾從吾好 逍遙 達十八

강태공<sup>14)</sup> 의 문정이라 살신결어 만하락고  
姜太公 關情 鱖魚

의내일성 도두우커 단적사풍에 배돌녀서  
疑乃一聲 短笛斜風

류교변에 술막으니 산포조어라 하는 대요  
柳橋邊 山浦釣魚

山浦釣魚라 함은 山地浦口에서 떼배 등의 배를 띄우고 紗峰落照의 光景이 視野 가득 들어오는 海邊一帶 「山地浦, 경굴, 건입포, 탑알」에서 한가로이 고기 낚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sup>15)</sup>

山地물 양쪽 기슭에는 수양버들이 울창해 봄이면 피꼬리가 울고 물새와 갈매기들이 내려앉아 지나가던 못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白鷺가 버들가지 사이를 하늘거리며 놀았다는 事緣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事緣을 우선 描寫하고 있다.

바람이 자고 黃昏이 물들면 버드나무 밑에 매어두었던 수십 척의 낚시배들은 漁夫의 부지런한 손놀림 속에 出漁準備를 서두르는데 이것을 마치 三國時代의 赤壁戰에다 比喻하고 있어 흥미롭다.

13) 푸른 갈대로 만든 것과 도롱이

14) 강태공이 80세에 周나라 武王을 만나 정승이 된 후 80년을 호화롭게 살았는데 옛말에서 유래.姜은 그의 本姓. 太公望·呂尙의 俗稱.

15) 《月刊觀光濟州》, 10월, 월간관광제주사, 1987, p. 29.

삿갓, 도롱이, 등불 등 準備가 끝나면 낚시배는 돛을 달아 水平線을 향해 떠난다.

다음에 고기 낚는 모습을 說明하고 있는데, 낚시를 드리우고 낚시에 고기가 물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達八十 기다리는 姜太公의 聞情」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낚은 후에 배를 돌려서 山地浦口에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山浦釣魚라 하는 것이다.

〈第五景：古藪牧馬〉

세오경 고수목마 옥초장장 넓은들에  
第五景 古藪牧馬 綠草長場

수만용마 오고가며 소래치니 목자<sup>16)</sup>는馬上에 선듯올나  
數萬勇馬 牧子 馬上

동에번적 서에번적 마군은 목자보고  
東 西 馬群 牧子

순서따라 정돈하니 일침전쟁 시작할때  
順序 整頓 日淸戰爭 始作

마군의 출병식이 이에서 더할소나  
馬群 出兵式

룡목호분 어승마가 이쌍에서 출산하니  
龍驤虎奮 御乘馬 出產

국가산업 분명하다 국가를 위하여서  
國家產業 分明 國家 爲

용총마 갈으치고 삼마출전 개선하면  
勇總馬 上馬出戰 凱旋

대장부 큰사업이 이에서 더 지날가  
大丈夫 事業

瀛洲 第五景인 古藪牧馬는 古馬場에서 말을 풀어 기르는 평화스러운 風景을 말한다.

濟州島는 예로부터 牧場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1950m의 漢擎山을 중심으로 하여 海拔 300m~1000m 사이는 소와 말을 放牧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16) 옛적엔 목자의 일을 다하는 것을 심히 고역스러운 일로서 한 번만 이 일을 지냈다고 하면 꽤가망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원통함을 부르짖는 愁歎의 형을 차마 볼 수 없다(李健：濟州風土記)고 하였으니 목자가 평화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특히 지금의 一徒洞 남쪽에는 草木이 우거진 넓은 늪(藪)이 퍼져 있어서 여기는 예로부터 數千匹의 牛馬를 치는 곳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곳이 農耕地로 開墾된 후인 지금에 와서도 사람들은 이 일대를 古馬場이라 부르고 있다.<sup>17)</sup>

봄철이 되어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말떼의 모습은 그야말로 평화스러운 牧場의 風景이며, 牧子가 말을 타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말떼들을 整頓하는 것은 마치 淸日戰爭 시작할 때에 馬軍의 出兵式하는 것과 같다. 또한 임금이 타는 말도 이 곳에서 나오니 國家産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自負心을 느낄 수 있고, 國家를 위하여서 말을 타고 싸움에 出戰하여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大丈夫의 가장 큰 일로 보고 있다.

〈第六景：鹿潭晚雪〉

제륙경 옥담만설 산수는 수려하야  
第六景 鹿潭晚雪 山水 秀麗

서편에 두렷하고 동쪽에 누운듯하니  
西便 東

청룡백호 분명하고 쥬룡이 력력하니  
靑龍白虎 分明 走龍 歷歷

세계명산 여귀로다 사시로 적설하니  
世界名山 四時 積雪

여름더위 두렵지안코 쥬위가 우묵하니  
周圍

분화구가 분명코나 산남에는 남풍이요  
噴火口 分明 山南 南風

산북에는 북풍이라 한난이 상백하니  
山北 北風 寒暖 相拍

오월이 불열의 청추<sup>18)</sup> 로다 차침차침 내려가며  
五月 不熱 淸秋

사방을 살펴보니 석일에 신선노든 곳이  
四方 昔日 神仙

지금에도 완연하야 원해조간 본록유라  
宛然 遠 朝看 鹿遊

상상히 뛰는사슴 사람보고 반기는듯  
雙雙

17) 《月刊觀光濟州》，7월호，월간관광제주사，1987，p.19.

18) 맑게 갠 가을. 음력 8월의 別稱.

적설이 교교하여 은금을 일릿스니  
積雪 皎皎 銀金

룩담만설 이안인가  
鹿潭晚雪

10월 중순경이면 漢拏山엔 瑞雪이 내린다. 첫 눈이 쌓인 아득한 高原에 다시 눈이 내리고 덧쌓이면 산의 겨울은 깊어지고 漢拏山 雪景은 1월에 들어 最高의 絶頂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덧쌓인 눈은 5월까지 녹지 않고 殘雪로 남아, 눈시린 秘景을 演出하는데 이를 두고 '鹿潭晚雪'이라 한다. 先人들에 의해 瀛洲 第六景으로 꼽혀 왔으리만큼 겨울 壯觀으로서는 단연 으뜸이다.<sup>19)</sup>

漢拏山을 世界名山이라 하며, 그 秀麗한 모습은 동쪽과 서쪽에서 보면 산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데 이것을 龍과 虎로 보고 있다. 사시사철 눈이 쌓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더위가 두렵지 않고, 白鹿潭이 噴火口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白鹿潭에서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사방을 살펴보니 옛날에 神仙이 놀았던 것이 지금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쌍쌍이 뛰는 사슴들은 사람을 보고 반기는 듯 하며, 쌓인 눈은 매우 희고 깨끗해서 銀金을 이룬 것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鹿潭晚雪이다.

〈第七景：靈室奇巖〉

세실경 영실기암 층암은 첩첩하고  
第七景 靈室奇巖 層岸 疊疊

안계는 광활한대 인형이 은은하다  
眼界 廣闊 人形 隱隱

넋적사람 전한말에 장군오백 잇다기로  
傳 將軍五百

차저기서 상대하니 과연 허언이 아니로다  
相對 果然 虛言

촉한삼국 명장들이 사의회를 회집한 듯  
蜀漢三國 名將 私議會 會集

령실은 자아관이 분명하다. 세계식물 들녘스니  
靈室 自亞館 分明 世界植物

세계공원 분명하고 고산과물 성숙하여  
世界公園 分明 高山果物 成熟

19) 《月刊觀光濟州》，2월호，월간관광제주사，1987，p.13.

식물이 풍성하니 극락원 이안인가  
植物 極樂園

靈室奇巖은 瀛洲 第七景으로 꼽히는 濟州의 景勝으로 漢拏山 靈室의 奇岩群을 말한다.

靈室은 漢拏山 頂上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진 險峻한 天然의 奇岩絶壁으로 數百의 奇岩들이 솟아 있는 모습은 마치 羅漢들의 모습과 같아서 五百羅漢 또는 漢拏山을 지키는 五百將軍이라고 일컬어진다.<sup>20)</sup> 이러한 五百將軍에 대해서 노래하고 奇岩들이 二重三重으로 우뚝우뚝 치솟아 神靈스러운 石室을 이루고 있는 靈室을 三國時代의 名將들이 會議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곳에는 특수나무들과 灌木 등 많은 종류의 稀貴植物이 自生하고 있으므로 世界公園이 분명하고 높은 산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풍성하니 또한 極樂園이라 말할 수 있다.

〈第八景：正房瀑布〉

제팔경 정방폭포 대해는 망망한대  
第八景 正房瀑布 大海 茫茫

범섬이 두렷하다 반석에 올라안자  
虎島 磐石

폭포경치 삼허보니 서시과처 석벽상에  
瀑布景致 徐市過處 石壁上

두렷이 썩잇는대 비류직하 삼천척은  
飛流直下 三千尺

의시은하락구천<sup>21)</sup>에 일광이 빛취여서  
疑是銀河落九天 日光

개인날에 무지개라 떨어지는 폭포수는  
瀑布水

바다로 홀이고 구슬같은 물방울은  
이리서러 부대치니 려산 화엄 두폭포가  
慮山 華嚴 瀑布

이에서 더할소냐 밤이 당도하야  
當到

남극천을 삼허보니 일점명성 반짝반짝  
南極天 一點明星

20) 《月刊觀光濟州》，11월호，월간관광제주사，1987，p.15.

21) 李白的〈廬山瀑布〉란 시의〈飛流直下三千尺，疑是銀河落九天〉에서 온 말.

로인성<sup>22)</sup> 이 분명하다 서광이 편조 하니  
 老人星 分明 瑞光 遍照  
 팔십청년 만히난다 우습고도 우습도다  
 八十青年  
 진시황의 헛될수고 로인성을 몰나보고  
 秦始皇 老人星  
 불사약만 구했고나 서한대 동방삭도  
 不死藥 求 西漢 東方朔  
 로인성을 보았는가 삼천갑자 장수<sup>23)</sup> 했네  
 老人星 三千甲子 長壽  
 이런경치 모도보니 심신이 상쾌하야  
 景致 心神  
 씨날생각 바이업서 그자리에 안이놀든 못하리라

瀛洲 第八景인 正房夏瀑은 여름에 正房瀑布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의 벼랑으로 떨어지는 하얀 물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하얀비단을 흘러 드리운 것 같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특히 正房瀑布를 中心하여 東西로 벌은 絶景의 길이가 70리나 된다고 하여 옛부터 西歸 70里<sup>24)</sup>라 하였는데 이 絶壁에 연결된 해안과 남쪽으로 箭林이 우거진 섬섬(森島), 문섬(蚊島), 고려말 牧胡石选理 등이 최후를 마친 옛 싸움터였던 범섬(虎島)이 나란히 서 있어, 보는 이들의 호흡을 잠시 멈추게 한다.

오랜 옛날 秦始皇의 명을 받고 不死草를 구하기 위해 童男童女 五百을 거느리고 濟州에 도착한 徐市라는 사람이 지금의 正房瀑布에 이르러 구경을 하고 그들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글귀를 폭포 바위에 새겨 두었는데 ‘徐市過處’이다.<sup>25)</sup>

넓고 멀리 아득한 바닷가에 보이는 범섬과 磐石에 올라 앉아 ‘徐市過處’라는 글과 가만 絶壁에 하얀 비단을 드리운 듯한 물줄기와 햇빛이 이 물줄기에 비칠 때 絶壁 위에 생겨난 영롱한 무지개를, 그리고 瀑布水가 떨어지는 光景을 描寫하고 있다.

22) 남극성

23) 중국 漢나라 武帝 때의 사람. 字는 曼倩. 벼슬이 金馬門侍中에 이르고 諧謔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전설에 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죽지 아니하고 장수하였으므로 「三千甲子東方朔」이라고 일컬음.

24) 일설에 70리는 정의현청이 있었던 성읍에서 서귀까지를 뜻한다고 한다.

25) 《月刊觀光濟州》, 8월호, 월간관광제주사, 1987, p.21.

밤이 되어 不老長生을 象徵하는 南極老人星을 바라보면서 老人星 때문에 長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과 秦始皇도 老人星을 알아서 바라보았다면 不死藥을 구하지 않아도 長壽했을 것이며, 西漢 때의 東方朔은 長壽했었는데 長壽한 이유를 마치 老人星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景致들로 인해서 떠날 생각은 없고 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第九景：山房窟寺〉

제 구경 산방굴사 그자리를 겨우쳐나  
第九景 山房窟寺

굴사형승 탐경처로 산방을 차저가니  
窟寺形勝 探景處 山房

천경에서 떨어지는 방울물은 구조에 가득하되  
臼槽

넘치난일 바이업고 석벽우에 색인시화  
石壁 詩書

시인묵객 차찰도다 상좌에 안즌 돌부처는  
詩人墨客 上座

육청륙갑<sup>26)</sup> 모도하야 길흉화복 판단는 듯  
六丁六甲 吉凶禍福

사방부인 모혀들어 몸정성 고이하고  
四方夫人

불경을 암송하며 백배천배 복을 비니  
佛經 百拜千拜 福

화봉삼축<sup>27)</sup> 이에서 더할스나 구조를 삼혀보니  
華封三祝 臼槽

삼사백년 지넷스나 삼신 산의 굴목나무라  
三四百年 三神山

질맛다고 자랑하니 영주산의 명 산목은  
羸洲山 名產木

굴목으로 알겠구나 그 구경을 다한후에  
求景 後

산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삼혀보니  
山上 四方

층층한 석벽길로 백의 입고 오는거동  
石壁 白衣 舉動

26) 은갑술을 할 때에 부르는 神將의 이름.

27) 華명에 封해진 사람이 堯와 대화하면서 壽·富·多男子 세가지 일을 祝禱한데서 비롯된 말(莊子, 天地篇).

불공군이 분명하다 서편을 바라보니  
 佛供 分明 西便  
 지나복원 보히는듯 이어도가 은은하야  
 支那福圓 移御島 隱隱  
 넷적회포 자어낸다

正房瀑布를 떠나서 山房窟寺를 찾아갔는데, 이 山房窟寺는 濟州人의 來世觀을 象徵하는 곳이기도 하고<sup>28)</sup> 산방덕의 전설로도 유명하다.

山房窟寺 바위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돌부처는 吉凶禍福을 판단한다고 여겨 사방에서 아낙들이 모여들어 福을 빈다. 그리고 窟 앞에 우뚝 서 있는 老松이 있는데, 이 老松은 瀛洲山의 名產木이지 결코 굴목 나무가 아님을 알려 준다. 여기에서의 구경을 끝내고 산위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 보니 佛供을 드리러 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서편을 바라보면서 옛적 懷抱에 잠기고 있다.

〈第十景：紗峰落照〉

제십경 사봉락조 서산락조 지난형상  
 第十景 紗峰落照 西山落照  
 우산풍경 완연하다 락조가 반사하야  
 牛山風景 落照 反射  
 사봉은 황금되고 서쪽하날 구름속에  
 紗峰 黃金 西  
 백구는 락조짜라 홍료암<sup>29)</sup>에 돌아들며  
 白鷗 落照 紅蓼岸  
 어부들은 배를저어 어귀여차 노래하니  
 漁夫  
 쾌활한 내의생각 제경공을 비우스며  
 快活 生覺 齊景公  
 촌음시경 앓기여서 사업성공 예탁하니  
 寸陰是競 事業成功  
 대장부 구경할곳 사봉락조 뿐이로다  
 大丈夫 求景 紗峰落照  
 아서라 이구경을 다하자면 몇날갈줄 몰으겠다  
 求景

28) 《月刊觀光濟州》, 3월호, 월간관광제주사, 1987, p.19.

29) 단풍이 들어 발장게 된 여뀌

紗峰落照란 濟州市 紗羅峰에서 바다로 해가 지는 일몰을 바라보는 風景을 말한다.

해질 무렵 紗羅峰에 오르면 城山日出的 感動만큼이나 진한 昇華를 느낄 수 있다. 서녘으로 기울던 해가 잠시 숨을 쉬며 내뿜는 生命의 熱氣, 파도에 投影된 붉은 불덩이가 金波, 紅波를 이루며 水平線 너머로 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景觀이다.<sup>30)</sup>

紗羅峰의 해가 지는 모습과 해가 지는 모습에 어울린 갈매기와 배를 짓고 있는 漁夫들을 바라보니 매우 상쾌해진다. 또한 짧은 時間을 아껴서 事業成功을 예약할 수 있으니 大丈夫가 구경할 곳은 紗峰落照뿐이다. 아울러 結詞부분에서 「아서 이 求景을 다하자면 멋날갈줄 몰으겠다」라 표현하여 아쉬운 마음과 구경을 모두 하자면 며칠이 걸릴 지 모르겠으므로 여기서 끝맺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 2. 形式考

歌辭는 3·4調 내지 4·4調를 그 詩想에 따라 제한없이 연속하다가 結詞 形式에서, 兩班歌辭는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5·4·3의 正格으로 끝맺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4調의 變格으로 끝맺고 있다. 또 音數律에 있어서도 兩班歌辭는 主音數律이 3·4調이고 副音數律이 4·4調인데 비해서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主音數律이 4·4調이고 副音數律이 3·4調로 되어 있다.<sup>31)</sup> 그렇다면 本歌는 그 音數律과 結詞形式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本歌辭는 全 119節 235句에 數字가 1,858字가 되는 長篇歌辭로 그 音數律은 다음과 같다.

音數律	2·4調	3·3調	3·4調	3·5調	3·6調	4·3調
頻度數	1	1	81	4	1	1
音數律	4·4調	4·5調	5·4調	2·3·4調	3·2·4調	3·3·4調
頻度數	123	2	3	1	1	4
音數律	3·4·4調	4·3·3調	4·3·4調	4·4·4調	5·3·4調	6·4·4調
頻度數	2	1	1	3	2	3

30) 《月刊觀光濟州》, 6월호, 월간관광제주사, 1987, p. 16.

31)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81, p. 353.

위에서 보면 本歌는 235句로 構成된 것 중에서 3·4調가 81句가 되고 4·4調가 123句로 되어 있어 平民歌辭의 主音數律이 4·4調이고, 副音數律이 3·4調도 되어 있다는 것에 부합하고 있다.

위의 音數律을 다시 再整理해 보기로 하겠다.

- 6 字句 { 2·4 調 : 1 句  
          { 3·3 調 : 1 句
- 7 字句 { 3·4 調 : 81 句  
          { 4·3 調 : 1 句
- 8 字句 { 3·5 調 : 4 句  
          { 4·4 調 : 123 句
- 9 字句 { 3·6 調 : 1 句  
          { 2·3·4 調 : 1 句  
          { 3·2·4 調 : 1 句  
          { 4·5 調 : 2 句  
          { 5·4 調 : 3 句
- 10 字句 { 3·3·4 調 : 4 句  
          { 4·3·3 調 : 1 句
- 11 字句 { 3·4·4 調 : 2 句  
          { 4·3·4 調 : 1 句
- 12 字句 { 4·4·4 調 : 3 句  
          { 5·3·4 調 : 2 句
- 14 字句 — 6·4·4 調 : 3 句

音數律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形式에 있어 좀더 자유스러운 表現樣式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詩歌라는 觀點에서 볼 때 적은 音數律로 形式을 構成하고 있다는 것이 形式美에 있어 짜임새 있는 優秀한 作品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本 歌辭에서는 8 字句인 4·4調가 使用된 頻度律에 있어 가장 많고 3·4調의 7 字句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他 平民歌辭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本 歌辭는 3·4調와 4·4調를 제외한 여러 개의 音數律도 몇 개씩 보

32)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81, p. 353.



이고 있지만 3·4調 내지 4·4調를 基本 音數律로 해서 構成되었다는 점에서는 優秀한 歌辭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는 結詞形式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아서라 이구경을 다하자면 멋날갈줄 몰으겠다」라 하여 3·4·4·4·4로 되어 있다.

結詞形式에서 兩班歌辭는 時調의 終章形式과 일치하는 3·5·4·3으로 끝맺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4調로 그대로 끝맺고 있다고 했는데 本歌의 結詞 第二句를 보면 4·4調로 되어 있어 결국 音數律에서 平民歌辭의 경우에 일치했던 것처럼 結詞形式에서도 音數律과 마찬가지로 平民歌辭의 結詞形式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3. 文學的 意義

위에서 《李在守實記》 속에 삽입되어 있는 〈瀛洲十景歌〉의 內容과 形式을 살펴 보았는데, 이 〈瀛洲十景歌〉가 지니는 文學的 意義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한 지역의 絶景을 노래한 歌辭 作品 중에서 우리 濟州島에서도 歌辭 作品이 있다는 것과 그것과 또한 우리 濟州島의 瀛洲十景歌을 主題로 했다는 것에 더욱 큰 價値가 있다.

둘째, 모두 4자 對句를 이루는 〈瀛洲十景歌〉에는 濟州 特유의 것을 뜻하는 象徴的 意味가 담겨져 있다. 第一景인 城山日出은 第十景인 紗峰落照와 對句를 이루는데, 城山日出이 하루 生活에서의 시작을 意味한다면 紗峰落照는 하루 生活에서의 끝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人間 삶의 輪廻를 짐작하게 해 준다. 第二景인 瀛丘春花는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과 더불어서 濟州에서의 뚜렷한 四季節 變化를 象徴하고 있다. 즉, 瀛丘春花는 봄을, 正房夏瀑은 여름을, 橘林秋色은 가을을, 鹿潭晚雪은 겨울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山浦釣魚는 古藪牧馬와 對句를 이루고 있는데, 山浦釣魚는 漁業을, 古藪牧馬는 農業을 나타냄으로써 그 옛날 漁業과 農業에 지중했던 濟州의 產業景觀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靈室奇巖은 山房窟寺와 對句를 이루는데 이 靈室奇巖과 山房窟寺 둘은 濟州人의 來世觀, 즉 永遠을 향한 人間의 염원을 象徴하는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濟州 특유의 것을 뜻하는 象徵的 意味가 담겨져 있는 〈瀛洲十景歌〉의 內容은 그 어떤 다른 歌辭作品들 보다도 뛰어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瀛洲十景歌〉의 內容에 담겨져 있는 象徵的 意味는 文學的인 方面에서 보았을 때도 오늘날 살아가는 濟州人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그밖에 瀛洲十景이라는 絶景을 노래한 것이니만치 觀光地域인 濟州道에서는 또한 重要的 資料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瀛洲十景이 있는 곳을 찾아가보면 그 옛모습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어 흔적만 남아 있는 곳들이 있는데 즉 古藪牧馬나 瀛丘春花, 山浦釣魚와 같은 것들이다.

古藪牧馬는 지금까지 廣闊한 牧場으로 쓰이던 草原이 個人 企業 牧場化됨에 따라 그 數가 격감되고 있어서 이제는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瀛丘春花의 訪仙門은 빼어난 景觀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交通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現在 밭길에 뜬하다. 山浦釣魚는 아름다왔던 川邊이 복개되어 옛 모습을 전혀 찾을 길이 없게 되어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光景은 이제 옛모습으로만 記錄되고 口傳되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古藪牧馬나 瀛丘春花, 山浦釣魚와 같은 景觀이 소멸 추세로 나간다면 濟州를 뜻하는 모든 것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만이라도 保護하고 弘報에 힘써서 오랜 時間이 지난 후에 그 옛모습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운 心情이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본다.

### Ⅲ. 結 論

위에서 全 119節 235句 1,858字에 대해서 內容과 形式 및 文學的 意義를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本論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內容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結論을 삼고자 한다.

1) 〈瀛洲十景歌〉는 濟州道에 있는 瀛洲十景 즉 城山日出, 瀛丘春花, 橋林秋色, 山浦釣魚, 古藪牧馬, 鹿潭晚雪, 靈室奇巖, 正房瀑布, 山房窟寺, 紗峰落照 등에 대한 것을 노래한 作品이다.

2) 〈瀛洲十景歌〉의 音數律과 結詞形式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音數律을 보면 本歌는 235句로 構成된 것 중에서 3·4調가 81句가 되고, 4·4調가 123句로 되어 있어 平民歌辭의 主音數律이 4·4調이고 副音數律이 3·4調로 되어 있다는 것에 부합하고 있다. 다음 結詞形式은 結詞 第二句가 4·4調로 構成되어 있어

平民歌辭의 結詞形式과 일치하고 있다.

3) 瀛洲十景은 모두 넉 자로써 서로 對句를 이루고 있는데, 이 瀛洲十景에는 濟州의 특유의 것을 뜻하는 象徴的 意味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그 어떤 歌曲 作品들보다도 뛰어난 作品으로 볼 수 있다.

4) 〈瀛洲十景歌〉가 제목 그대로 濟州의 絶景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觀光地 域인 濟州道에서는 重要的 資料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弘報에 힘쓰며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保護에 힘써서 더 이상 방치만 해두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序論에서 언급했듯이 〈瀛洲十景歌〉의 內容·形式·文學的 意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사실들은 다음의 課題로 남겨 두기로 하겠다.

### 參 考 文 獻

- 김두봉, 《제주도 실기》, 제주실적 연구사, 1932.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81.  
양순필, 〈제주 풍토기와 풍토록의 비교연구〉, 구수영 화갑논총, 1985.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1982.  
월간관광제주사, 《월간관광제주》 1~11호, 1987~1988.  
이동영, 《가사문학논고》, 형설출판사, 197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권~4권, 지식산업사.  
조무빈, 《이재수실기》, 중도문화당, 1932.  
한치문,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1973.

〈 본 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내용 〉

- ① 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 : 「學術調查報告書」제 5집, 1976.
- ②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 「學術調查報告書」제 6집, 1977.
- ③ 北濟州郡 涯月邑 納岾里 : 「學術調查報告書」제 7집, 1982.
- ④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 「學術調查報告書」제 7집, 1982.
- ⑤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 「學術調查報告書」제 8집, 1984.
- ⑥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 「白鹿語文」제 1집, 1986.
- ⑦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 : 「白鹿語文」제 1집, 1986.
- ⑧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 : 「白鹿語文」제 2집, 1987.
- ⑨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 : 「白鹿語文」제 5집, 1988.

濟州道全圖

